

우리나라 산업화 이끈 삼척 도계탄전지대 '팔도공화국' 도계읍, 전성기 거주 인구 6만 명 육박하기도

강원 삼척시 도계읍은 국내 최대 석탄생산지다. '국내 최대 석탄생산지'라는 영광의 바탕에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1950년 설립됐지만, 도계광업소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부터 석탄을 생산했다. 삼척탄광은 1951년 도계광업소와 태백 장성광업소로 분리됐다. 도계광업소를 중심으로 한 도계탄전지대는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다. 도계탄전지대 탄광이 가장 많을 때는 13개에 달했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인 1987년이다. 도계탄전지대 최대 호황기는 1970년대다. 당시 '태백·삼척·동해를 먹여 살리는 건 도계사람', '도계여자들 멋쟁이' 등의 유행어가 생겼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이 몰려왔다. 1979년 도계읍 인구는 4만4천534명까지 늘었다. 주민등록 인구다.

실제 거주 규모는 6만 명에 육박했다. 당시 도계읍은 '팔도공화국'(전국 팔도 사람이 모두 사는 곳)으로 불렸다. '도계는 봄날'(돈 걱정 없이 살던 시절)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풍족했다. 1978년에는 흥전리에 3층 연립의 희망아파트가 건립됐다. 아파트형 탄광 사택의 효시다. 도계광업소는 개광 이래 2014년까지 총 4천126만의 석탄을 생산했다. 현재 삼척 도계읍에는 도계광업소와 경동탄광이 있다. 이들 탄광이 국내 연간 총 석탄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가깝다. ▼



사랑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삼척!**

수로부인천화공원

삼척시
미로정원

- 삼척미로정원
- 식당 / 주차
- 갯길
- 아열장
- 방길
- 생태

삼척으로 오세요~!



삼척시
SAMCHEOK CITY

